

‘의생명공학과 이종현 스튜디오’ 현판식 개최

- 이종현 교수의 발전기금 활용... 온라인 강의·행사 활성화를 위한 스튜디오 구축



▲ 25일(목) 지스트 다산빌딩에서 의생명공학과 이종현 스튜디오 현판식을 개최하고 단체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는 기계공학부 이종현 교수가 기부한 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의생명공학과 이종현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11월 25일(목)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현판식은 김기선 총장 등 주요 보직자와 기계공학부 이종현 교수, 의생명공학과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산빌딩에서 진행됐다.

의생명공학과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수업과 행사가 온라인으로 활성화됨에 따라 국제적 수준의 온라인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기부자 예우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의생명공학과 이종현 스튜디오」로 명명하였다.

이종현 교수는 “의생명공학과가 수준 높은 교육과 연구 수행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융합형 리더를 양성하는데 온라인 스튜디오가 잘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선 총장은 “후학 양성을 위한 이종현 교수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면서 “지스트는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개발과 융합과학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